

# 아시아나 쟁점 합의...빠르면 오늘 매각

###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 9.9% 317억 합의 구주 매각가 3200억대...내년 1월 유상증자 2조

아시아나항공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한도 비율이 9.9%로 최종 합의했다.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이 합의됨에 따라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주주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앞당겨져 26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막판 진통을 겪었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7주간 예

비실사가 실시된 만큼 이번 인수·합병(M&A)에서는 본실사에 의한 가격조정을 생략하고 손해배상한도로 통일하기로 했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 여파를 고려해 손해배상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호 측은 난색을 표하며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산 컨소시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함에 따라 이후 과징금 등 유uan을 맞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산 컨소시엄은 일반 손해배상한도 5%와 특별 손해배상한도 10%를 계약서상에 각각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호 측은 입장을 고려했다. '통합' 손해배상한도로 9.9%를 명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구주 매각 가격은 현산 컨소시엄의 요구대로 3200억원대로 정리됐다.

재계 관계자는 "금호 측에서는 그나마 협상 과정에서 손해배상한도를 '한자릿수'로 막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계약서 세부사항까지 조율된 만큼 양측이 2차 '데드라인'인 27일보다 하루 정도 앞당긴 26일 주주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는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교체한 뒤 유상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된 2조원 가량의 실탄은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정상화 자금으로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자본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조1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현재 660%에 달하는 부채비율도 30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무안 항공특화산단 등 전남 5개 산단 신규 지정

### 화순·함평·영광·해남 포함

정부가 무안 항공특화산단 등 전남지역 5곳을 산업단지로 신규 지정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남도 등 13개 시·도가 마련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에 대해 지난 23일 산업단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심의, 전국 85개 산업단지를 지정 계획에 반영했다.

전남지역은 무안·화순·함평·영광·해남 등 5곳 139만3000㎡(산업용지 95만㎡)가 지정됐다.

무안군은 35만1000㎡(산업용지 27만3000㎡) 규모의 항공특화산단을, 화순군은 31만5000㎡(21만5000㎡)의 화순생물약제2산단을, 함평군은 31만8000㎡

(20만㎡)의 학교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영광군은 21만4000㎡(12만7000㎡)의 묘량농공단지를 시행한다. ㈜토우남해중공업은 19만5000㎡(13만5000㎡) 규모의 해남 옥동일반산단을 시행·개발한다.

광주시는 지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엔 통과된 '2020년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단지 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 3년에서 7년으로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각종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6차 부담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이른바 '데스밸리' (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

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던 것을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적용한다. 플라스틱 제조·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kg당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올해는 연매출 10억~300억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준다.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조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kg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은행, 지역 어린이 위한 '성탄절 나눔행사'



'일일산타'가 된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25일 열린 '성탄절 나눔행사'에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농지지원 2030 우대해 주세요"

### 농어촌공사, 혁신도시서 청년농업인 초청 간담회

"청년농부들에게 희망을 준다면서 농지은행사업의 청년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지 확보 방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농 간 우선순위를 나이 순으로 정하나요. 말이 됩니까?"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청년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는 지역 청년농부 31명의 성토가 쏟아졌다. 김인식(65) 공사 사장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는 예정된 종료시간을 한 시간 이상 넘겨가며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전남 도농업기술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장 뜨겁게 오르내린 현안은 '농지은행' 제도였다. 청년농업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농지 확보'이기 때문이다.

담양 최영상씨는 "청년들은 농지확보가 급선무인데 공사는 가진 땅이 적고, 현장

에서는 공사에 땅을 맡길 마음이 없어 문제"라며 "왜 지주들이 공사에 땅을 맡기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비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암 박정운씨는 "농지은행 사업인 경영희생지원 이자율 3%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의 조건에 대해 모르는 주변 농업인이 많다. 경영희생 환매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김창섭씨는 "청년창업농 간 우선 지원순위를 정할 때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있다"며 "경영면적을 반영한 기준을 재설정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함평 양희백씨는 "농지은행 포

털을 통한 농지 매도 때 2030세대를 우선순위에 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년농업인은 "지주와 매입자 간 합의를 거친 뒤 단지 지원자금을 받을 때 포털에 공고할 필요가 있는 지" 되물었다.

농어촌공사는 연말까지 이들의 건의사항을 담당부서별로 검토해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농지은행 사업에서 청년층(만 19~39세) 지원 비중은 2017년 23.7%, 2018년 23.2%, 올해 8월말 17.3%로 연 20%대에 그친데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여수광양항 내년 9월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

여수광양항 등 국내 5대 주요 항만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함

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정 대상은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부산항, 울산항이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도 확대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